

순천형 푸드플랜 '생태미식도시' 추진 눈길

안전 먹거리 제공하고 순천의 맛 통해 체류형 관광 유도
 시 용역보고회...순천역 주변 여행자 미식거리 조성 제안

순천시가 생태와 먹거리를 기반으로 한 순천형 푸드플랜 '생태미식도시'를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5일 순천시에 따르면 음식·관광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순천시 생태미식도시 구축 용역보고회'를 가졌다.

시는 보고회에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광객들에게는 순천의 맛을 통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 용역을 맡은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는 순천 윗장국밥거리를 선도사업으로 진행하고, 순천역 주변은 미식자원을 연계한 여행자거리로 조성할 것을 제시했다.

윗장국밥거리는 우선 가로 경관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성은 가로경관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공디자인을 적용한 가로등, 교통시설 등의 문화화, 셉티드 설계, 미디어 파사드 도입, 푸드트럭을 활용한 스트리트 키친 도입, 시·상인회 등과 연계한 홍보마케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시 주변은 역전시장과 게스트 하우스, 청춘창고, 동천, 아랫장에 이르는 길을 여행자 테마 미식 거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순천역로타리 주변에서 아랫장까지 연결되는 거리를 보행친화도로로 정비하고, 아식·카페 등 편의시설과 여행객 교류 장소 등이 어우러지는 거리로 유도하자는 것이다. 동천 주변에는 스트리트 키친이 가능하도록 푸드트럭 등을 활용해 기존 상인이나 청년들이 운영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이 곳을 독일 볼테 시처럼 신호등 없는 거리로 만들어 보행자와 차량이 공존하는 투어존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경영연구소는 "여행객들이 순천원원박물관과 순천만생태공원을 찾은 뒤 인근 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들을 도심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여행자거리 개념의 보행순환로를 정비하고, 그 둘레에 어느 곳에서 접근하더라도 미식거리나 시장 등이 연계되고, 거리의 문화적 요소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순천시는 최근 생태와 먹거리를 기반으로 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생태미식도시 구축' 용역보고회를 열었다.

순천시 관계자는 "먹거리 안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생태미식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 촉진, 올바른 식문화 인식 개선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에는 음식점이 2451곳 있다. 한식이 1409곳으로 57.4%를 차지하고, 중식 112곳, 분식 100곳, 일식 87곳, 양식 30곳 등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8일은 국밥데이... 윗장국밥축제 오세요

"윗장국밥 맛 보러 오세요." 순천시는 오는 8일 윗장국밥골목 일원(사진)에서 '2017 순천 윗장국밥 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윗장국밥축제는 올해로 6회째다.

6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윗장국밥은 일반 국밥과 달리 돼지창자를 사용하지 않고 '살은 돼지 머리'에서 발라낸 살코기만을 재료로 사용하여 국물 맛이 깔끔하고 뒷맛이 개운한 것이 특징이다.

또 한 그릇에 7000원 짜리 국밥 2인분을 주문하면 수육 1정식을 무료로 제공해 그 맛과 푸짐함이 입소문을 타고 음식거리로 자리잡았다.

이번 축제에서는 윗장국밥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브랜드로서의 기반강화를 위해 국밥 300그릇을 무료로 제공하고, 국밥 요리 및 국밥먹기대회 등

프로그램이 다채롭다. 초대가수 공연을 비롯해 관광객 노래자랑, 윗놀이 등 체험행사도 마련됐다. 순천시는 윗장국밥이 음식특화거리로 거듭나기 위해 방문객들이 시장과 상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을 조성했으며, 쾌적한 시설과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 음식특화거리로 지정돼 사업비 10억원을 지원받아 공동작업장 설치, 상설조형물 제작, 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최되는 국밥 축제인 만큼 많은 시민들과 방문객이 행사에 동참해달라"며 "국밥이 있는 전국 모든 곳에서 9월 8일이 국밥데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만 국제교향악축제 5만명 즐겼다 조수미 등 음악가 550여명 참가 성료

순천만 국제교향악축제가 5만여명이 관람하는 등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순천시는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열린 '2017 순천만 국제교향악축제'가 성황을 이뤘다고 5일 밝혔다.

넬라판타지 인 가든(정원에서 꿈꾸는 행복한 상상)이라는 주제로 550여명의 음악가들이 참가한 이번 축제는 5만여 명의 관람객이 참석했다.

개막 첫날인 8월31일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의 포에버 가든(Forever Garden) 개막 공연(사진)에서는 3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공연장을 찾아 주무대뿐만 아니라 LED 중계화면이 추가로 설치된 4개의 구역에도 가을밤의 클래식을 즐기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조수미는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지휘 최영선), 하모니스트 박종성과의 협연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여 3만여 관객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으며, 특히 순천시립합창단과의 협연은 순천시 문화예술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개막 공연에 다문화가정, 홀로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문화 향유 약자를 배려한 특별 초청 좌석을 마련해 나눔과 배려의 의미를 실선했다.



지난달 31일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열린 '2017 순천만 국제교향악축제' 개막공연에서 소프라노 조수미가 열창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지역인재 발굴을 통한 인재양성에 목적을 둔 둘째날 공연에서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펼치는 꿈의 무대 및 전문심사를 거쳐 지역의 우수한 연주자들이 참가해 특별 편성된 프로젝트오케스트라와 테너 이현, 바리톤 김원호 등 지역 음악가들의 협연으로 지역인재들의 높은 문화 수준을 선보였다. 또 팬 아시아 필하모니아, 첼리스트 키

릴로딘과 지역음악가 소프라노 나혜운, 테너 은형기와의 협연은 지역음악가들의 활동 기반 강화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부대프로그램으로 진행된 키킬로딘의 마스터클래스는 지역의 음악학도들에게 역량향상의 기회가 되기도 했다. 피아니스트 양방언의 브리즈 프롬 순천(Breeze From Suncheon) 폐막 공연은

한·일 전문 연주자들과 함께 서양악기와 우리 전통악기를 바탕으로 한 국악과 클래식이 융합된 가든뮤직을 선사했다. 조중훈 순천시장은 "올해로 2회째를 이룬 축제는 순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로 업그레이드 됐다"며 "순천시민의 공연문화 수준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시 CCTV관제센터 전남경찰청 평가 1위

순천시 CCTV관제센터가 전남경찰청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순천시는 전남지방경찰청이 최근 실시한 '2017년 최고 관제센터 평가'에서 순천 CCTV관제센터가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범인 검거, 경찰과 협업, 범죄 예방 활동, 언론 홍보 등에 대한 올해 상반기 CCTV관제센터의 기여도와 활동을 분석했다.

순천 CCTV관제센터는 폭행·강도 등 25건의 범인 검거에 기여했고, 거동수상자나 청소년 탈선신고, 술 취한 사람 검거 등에서 적극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펼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 2015년 5월 문을 연 순천 CCTV관제센터는 1660대의 CCTV 카메라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지켜왔다.

쉬는 날 없이 하루 24시간 내내 전문 관제요원과 경찰관 등 28명이 실시간 화면을 바라보면서 특이하거나 이상

한 점을 찾고 있다.

특히 비상벨 226대를 공원과 화장실 등에 설치해 위급상황 시 호출하면 즉시 관제센터에서 현장 CCTV를 보면서 경찰상황실과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대응방안도 마련해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순천 CCTV관제센터는 순천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연평균 60건의 형사사범을 검거하고 740건의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늘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고 사건·사고 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반기에 CCTV 카메라 25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와 지속적인 방법 활동을 통해 시민이 걱정하지 않는 더욱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수시	정시
인문	신 학 과	28	18
	국제한국어교육학과	3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6	2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 악 학 과	10	5
	실용음악학과	15	4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국제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17. 9. 11(월) ~ 15(금) • 전형일 : 2017. 9. 29(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7. 12. 30(토) ~ 2018. 1. 2(화) • 전형일 : 2018. 1. 9(화)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8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소로 36